제26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 1 호

교육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7월 19일(화) 오전11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면

(11시 33분 개의)

○위원장 김생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원구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출신 교육위원장 김생환입니다.

지난 7월 6일 본회의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서 화합과 소통을 통한 단결된 모습으로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확보, 친일인명사전 배포, 숭실고 교장 장기공백 사태 등 여러 현안들을 이슈화하고 해결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서울교육의 특성상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 표면화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후반기 교육위원회의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2년간 늘 낮은 자세로 위원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위원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대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구성된 후 개최되는 첫 회의이므로 먼저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신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례상 의석은 위원님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사말 간단하게 준비하십시오.

먼저 김동욱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이렇게 좋으신 분들하고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함께하는 동안에 서로 양보하면서 뭔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멋지게 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선ㆍ후배 위원님들 잘 모시고, 직원 못지않게 잘 모시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하게 되어서 반갑고요. 곧 더워질 날씨에 건강들 유의하시고 좋은 상임위 2년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생환 김동욱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형주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구 3선거구 출신 문형주 위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문광위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 하반기에 이렇게 교육위원회에서 김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좋은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기대가 되고, 또 저 또한 마음을 잘 잡아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요. 다 자기들의 어떤 브랜드를 하나씩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웃고 삽시다의 문형주 의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2년 동안 하반기에 웃으면서 재미있는 의정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생환** 웃고 삽시다 문형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박기열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동작구 제3선거구 출신인데요. 사실 제가 재선이지만 교통위원회에서만 만 6년을 의정활동 하고 새롭게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8대 전반기에도 1순위가 교육이고 2순위가 교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밀려서 양보를 해서 교통위원회를 하다가 위원장까지 하고 평의원으로 다시 왔는데, 흔히들 정치하는 사람은 초심을 잃지 말자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리 위원장을 했지만 다시 초심을 찾아서 평의원을 하는데, 우리 교육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모범적인 상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것은 우리 김동욱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이런 마음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년간 우리 교육위원회가 동료의원들 간에도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굉장히 모범적인 상임위원회가 되었더라,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겠습니다. 지역구 사정이 있어서 빠질 때도 있는데 위원장을 하시면 아마 빠질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 붙박이로 계셔야 되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 열심히 위원장님을 같이 모시고, 또 부위원장님이 선출되면 부위원장님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생환** 박기열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까지 교육위에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새로 하반기에 교육위 위원님이 되신 의원님들을 뵈니까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선의 김동욱 위원님부터 이 자리에 없지만 오경환, 김경자(양천) 위원님 등등 지난 상반기 때 이미 탁월한 의정활동의 모범을 보이신 분들이 많이 우리 교육상임위에 오신 것 같아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많이 기대되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차피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형식적 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교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점과 철학, 입장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상반기 때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은 그런 부분이 헷갈려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고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지가 좀 혼란스러울 때가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우리 당의 컬러와 정책에 맞게 함께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생환** 장인홍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기회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 반갑습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 한 3개월 정도 해서 부족한 것이 많아서 후반기에 다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다른 위원회와 달라서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기 3개월이었지만 여기 계셨던 분들도 다른 위원회로 가셨지만 아주 열심히 했고, 후반기에도 기라성 같은 분들이 오셔서 잘할 거라고 봅니다. 의원은 어찌 됐든 집행부와 달리 꼭 할 수 있는 것, 그런 과정을 서로 합심해서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생환** 허기회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구덕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반갑습니다. 금천 제2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강구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비슷하시겠지만 교육위를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부터 교육위를 오고 싶었는데 우리 지역 구청장이 지역현안 때문에 도시계획 쪽에서 고생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쪽을 먼저 고집부려서 갔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선출직이라는 한계 때문에 지역에 가지고 갈 선물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교육위가 아마 제일 빠르게 전달될 것 같아서 교육으로 왔고요. 제가 구의원 두 번 하면서도 교육 쪽에 줄곧 관심 가졌고요.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남들이 잘하기 힘든 것도 10년에 걸쳐서 성과를 만들어 냈고 그래서 교육에 관심이 많고요.

교육 활동하면서 제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교육이니까 관이라든지 당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당을 부각시키지 말고 당적으로 가르지 말고 우리 위원회 의원활동으로 그냥 갑시다, 그래야지 당으로 나누다 보면 우리 소수당 같은 경우는 더 적어지고 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위원회 활동하는 동안만큼은 당적인 그런 소견이라 할지라도 개인의견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서로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만약에 그동안에는 당으로 구분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의정활동 하면서 부족함이 많지만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우리 위원회 운영하는데 방해는 안 되게끔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생환 강구덕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44분)

○위원장 김생환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3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두 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장인홍 위원님과 송재형 위원님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장인홍 위원님과 송재형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인홍 위원님과 송재형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인홍 위원님과 송재형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홍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그 공이 저한테까지 오게 됐는데요. 저간의 사정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잘 아실 것이고, 어쨌든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생환 다음은 송재형 부위원장님이신데요 지금 참석이 안 되어 있으므로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선출되신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항상 긴밀히 협의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새로운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을 강화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가족과 시민 모두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 모두가 행복한 서울교육 ’ 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김생환 장인홍 김동욱 문형주
박기열 허기회 강구덕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속기사

김남형 김성은